

## 정보통신혁명과 新경제<sup>1)</sup>

앨런 그린스펀<sup>2)</sup>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경기사이클은 戰後의 경기사이클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경기 확장의 지속 기간이 기록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세도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비해 노동시장의 경색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생산성의 증가라는 중요한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1985년 이후 비금융기업들의 시간당 생산은 연평균 3.5%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난 25년 동안의 기간과 비교할 때 거의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나는 오늘 이처럼 괄목할 만한 경제성과의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는 정보통신혁명과 그것이 정부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설하고자 한다.

### 정보통신혁명과 새로운 변화의 흐름

정보통신혁명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확대와 불확실성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업상 의사결정이 불확실성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다. 고객의 변화하는 수요는 물론 복잡한 생산시스템을 흐르고 있는 원료와 재고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시차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은 이미 지나가버린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게 되고, 필수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보통신혁명에 힘입어 시의적절한 정보가 대규모로 유통됨에 따라 사업상의 의사결정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불필요한 재고나 과잉인력이 줄어들게 되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생산과 분배 활동의 중간과정들이 제거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업간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에도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

1) 이 글은 앨런 그린스펀 美 연준 의장이 3월 6일 보스턴 대학에서 열린 「신경제에 관한 회의」에 연설한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임

2) 현 美 FRB 의장. 지난 1987년 레이건 행정부때 FRB 의장에 임명된 후 역대 최장수 의장으로서 12년간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해오고 있으며, 저물가와 고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뉴이코노미의 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최근에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대규모 기업간 인수·합병이 발표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기회가 무수히 생겨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이들중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확고한 사업 기반을 구축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에게 경쟁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물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합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

정보기술혁명이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금융 부문이다. 금융 혁신의 결과 위험을 분산 또는 이전시켜 주는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무수히 생겨났다.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실물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줄일 수는 없지만, 이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고 동시에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분산 또는 이전시킴으로써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보기술혁명은 이러한 금융혁신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경제의 불균형과 고용 불안정성 증대

정보통신혁명이 미국 국민들 대다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 이면에는 기술적인 진보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경우 직면하게 될 잠재적인 국제수지 불균형과 고용 불안정이 잠재되어 있다.

생산성의 향상은 잠재적인 생산 증대와 실질소득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성의 증가는 잠재적인 총공급의 증가보다 더 큰 폭의 총수요 증대를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생산성의 구조적인 증가 현상은 장기적인 기업 수익에 대한 더 높은 기대를 낳고, 이러한 기대는 다시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주가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들의 시장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재화나 서비스가 아직 생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실제 구매력은 증가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 가치 상승의 3~4% 정도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소비 증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몇 년간 가처분소득에 비해 급증한 소비 지출이나 이에 상응하는 저축률 하락은 이러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주가 상승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비용을 하락시킴으로써 자본지출의 급증도 유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지출 증가에 따라 국내총수요는 연평균 1%p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국내총수요의 증가는 순수입 증가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신규 노동력 공급에 의한 생산 증가에 의해 상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급을 초과하

---

는 수요를 무한정 충족시킬 수 없다. 순수입 규모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외국인 직간접투자의 증가에 의해 상쇄되어야 하는데, 해외자본의 유입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하여 보다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한편, 외국인 이민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신규 노동력의 유입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업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는 수급 원칙에 따른 임금 상승이 생산성 증가를 상회할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업 수익성 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수지상의 불균형과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잠재적인 노동력 수준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순외채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힘에 의해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의 혜택은 이러한 불안정성에 의해 잠식될 것이다.

빠른 경제적, 기술적 변화의 두 번째 결과는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이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초과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동자들은 경기가 바닥 수준에 이르렀던 1991년에 비해 고용에 대한 불안심리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간 빠른 자본 이동의 결과 숙련기술의 생성과 소멸 속도도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만 마쳐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평균적인 숙련기술을 갖출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최근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현장훈련을 위해 대학으로 몰려들고 있는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는 1990년대의 기술 발전에 의해 확산된 치열한 국제경쟁을 줄이도록 하는 정치적인 압력을 유발시킨다. 보호주의적 정책은 이러한 경쟁적인 힘을 금지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러한 조치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방해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산업간 이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 보호주의는 쇠퇴하는 산업에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쇠퇴하는 산업에서 50살까지 그럭저럭 일자리를 유지하기보다는 35살에 보다 전망있는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이롭지 않을까? 쇠퇴하는 산업에서 퇴직이나 이직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통해 보다 새로운 기술로의 자본흐름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최근 몇 년간의 기술 혁신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한다. 아울러 경쟁과 혁신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정책들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